충청지역 기초지자체 특화발전 활성화 워크숍 결과

□ 개요

○ **일　　시** : 2012. 6. 12(화) 14:00~6.13(수) 13:00

○ **장　　소** : 충북 괴산군청 별관 3층 대회의실

○ **주최/주관**: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,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

○ **후　　원** : 국토해양부, 충청남도, 충청북도, 괴산군, 충남발전연구원, 충북발전연구원, 국토연구원, 한국생산성본부

○ **참석인원** : 60여명(단장, 발제・토론자, 지자체 관계자 등)

□ 진행순서 및 내용

○ **개 회 식**

- 개 회 사 : **김화진** (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)
- 환 영 사 : **임각수** (괴산군수)

○ **주제발표** : 3건

- 기초지자체 특화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(이왕건/국토연구원)
- 특화발전정책 개요(장성화/지역발전위원회)
- 농어업 6차산업화에 의한 지역특화발전전략(유학열/충남발전연구원)

○ **특화사례 발표** : 3건

- 갈은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(산막이옛길 등), 우종진/괴산군 과장)
- 홍성한우　　사업(　동우/홍성축협 지도과장)
- 임실치즈특화발전사례(　명진/임실치즈과학연구소 계장)

○ **지정토론(5명/** 지역위 1, 교수 2, 전문가 2) 및 질의 응답

□ 주요 토론내용

○ 원광희 (좌장 / 충북발전연구원 기획실장)

- 주제발표나 사례가 해당 지자체에 어떻게 전파될 것인가,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중심으로 토론 요청
- 포괄보조금 제도의 추진과 함께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,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도 부족해지고 사업에 대한 참여 독려도 어렵게 되는 구조로 바뀜어서 개선이 필요함
- 2018년 부터는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인구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도시규모의 축소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그 대안으로 베이비부머 유치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와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음
- 신규마을(전원마을 등) 조성의 문제 : 농산촌 지역에 주거지를 형성하면서 도시적 생활과 농촌지역 생활의 부조화 문제 야기하였고 이에따라 폐촌마을을 활용한 거점정비 사업의 추진이 필요
- 상향식 사업의 장점 :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리더를 육성할 수 있음. 부작용으로는 리더의 독단으로 인한 지역 내 갈등 야기
-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수많은 사업들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제(농촌계획직 등)의 창설이 필요하다

○ 장인식 (우송정보대학 교수)

- 관광을 중심으로 토론하겠음. 성공을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하며, 和而不同으로 토론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음
- 최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연계협력이나 상생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6차산업 육성을 추진하게 되면 후발 주자(시군)들이 접근하기에는 벅찬 감이 있음
- 따라서, 기존에 지역위에서 추진하는 연계협력이나 상생과 특화발전이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서 연계협력이나 상생이 필요한 시군도 있고 특화발전이 필요한 시군도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이런 것들이 시군에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축(방향, 가이드라인)을 제시해 주기 바람
- 특히, 후발 지역(시군)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와

지원이 필요함
- 관광협회 등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, 지자체에서 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력이나 실천할 역량·계획이 없어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. 이것은 기획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

○ **이오석** (영동대학교 교수)
- 영동 지역은 경쟁력있는 농특산물이 없고, 문화자원으로서 국악(박연)이 있어 이것을 관광상품화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으나 한계 봉착
- 2005~2010년까지 포도를 중심으로 하는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현재는 와인코리아에서 연매출 40억원의 소득을 창출했고, 현재 농가형 와이너리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46개 농가에서 허가를 취득하여 사업중으로 이중 연 1억대의 매출을 올리는 농가가 3~4개 이고 한 농가에서는 도시에 있던 자녀들이 유턴하여 와인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음
- 10년 뒤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시기임.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과 연계하여 이들의 노후대비에 대한 방안으로 귀농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창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
- 베이비부머 중에서는 은퇴 후 귀촌, 귀농을 검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, 대도시 주변지역에서는 베이비부머의 귀촌 귀농에 관련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
- 전문적인 귀농귀촌보다는 고향이나 지인들이 있는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

○ **김정섭** (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)
- 특화의 의미는 - 남들이 하지 않는 다른 것임. 즉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만들어서 경쟁을 피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음(예:절임배추, 치즈)
- 지역발전에 있어서 특화사업의 육성은 주류가 될 수 없음.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경쟁이 없는 독자적 영역을 개척했기 때문에 성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며, 특화되지 못하는 일반 사업들은 결국 가격으로 경쟁해야 함

- 그러나, 특화사업의 가장 큰 애로점은 항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. 예를 들어 제주도 올레길이 유명해지자 전국적으로 길 조성이 유행하게 됨. 여기서 경쟁에 이기려면 결국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함
-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기업가 정신으로서, 계속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인력을 육성하는 등의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필요함. 지역에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계속 고민하고 변화를 위한 시도를 해야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음
- 2000년대부터는 정부의 지침에서 기획과 혁신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제대로 적응한 자치단체는 성공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
- 특화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'자발성'임. 즉, 실제 주체인 민간 주체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을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을 만들어야 함
- 신활력사업 등 기존의 특화발전 관련 사업들의 가장 큰 의미는 지역에서 자발적인 기획과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풍을 조성했으나, 최근의 정책(포괄보조금)은 이런 기품을 찾아볼 수 없음.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을 고민해주기 바람

○ **신광호** (성장기반과장)

- 특화사업의 개념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다른지역과 차별화되면서 지역의 먹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
- 기존에 신활력사업을 통한 특화사업 추진에 성공한 사업과 실패한 사업을 비교해 보면 신활력사업 등 정부의 지원정책과 함께 지역에서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면서 오랜 기간동안 지속성을 가진 사업들은 성공한 사례로 소개되고 있음
- 실패한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신활력사업 등 정부 지원이 종료된 이후 지역에서의 자발적인 투자나 노력이 사라지면서 사업 자체도 동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음
- 지역위의 특화발전 활성화 추진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으로,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특화발전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임
-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에서의 자발적인

노력을 중심으로 한 사업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, 포괄보조금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노력할 예정임

- 영국 셰필드의 사례를 보면 기존에는 철강 중심의 도시였으나 현재는 도시재생으로 유명한 도시로 소개되고 있음. 그 이유는 사업의 규모는 작지만 지역의 자발적인 노력과 창조적인 발상(문화적 요소)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음
- 특화발전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브랜드임. 기존에 지자체에서 브랜드 육성을 추진했으나 대부분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. 그 원인은 충분한 고민과 노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됨
- 오늘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서 특화발전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겠음

○ 단장님 마무리 말씀

- 워크숍 개최에 협조해 주신 괴산군 및 충청권 광역위와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, 산막이 옛길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 활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니 매우 기쁨
-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현재 상생발전, 특화발전의 두가지 트랙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
- 자발적인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공감함. 특화발전을 비롯한 모든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지역의 자발성이며, 중앙정부는 여기에 약간의 지원을 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구조임
- 기초지자체의 특화발전에 관련된 현행 정책 구조는 자발성 측면에서 기존의 정책에 비해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며 개선될 필요가 있음

  ※ 포괄보조금 제도의 한계와 과제에 대해 설명 : 당초의 취지, 개별사업체계 환원, 사업별 지침, 부처별 자체 평가 등

- 제도개선을 위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나 대규모 제도 개편은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.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자체의 자발성 제고를 위해서는 노력하겠음

붙임 **워크숍 주요장면**

▣ 워크숍 개회 (사회자: 충청광역위 홍은아 팀장)

▣ 특화발전정책 개요 발표(장성화 연구관)

▣ 홍성 특화발전사례 발표(홍성축협 김동우 과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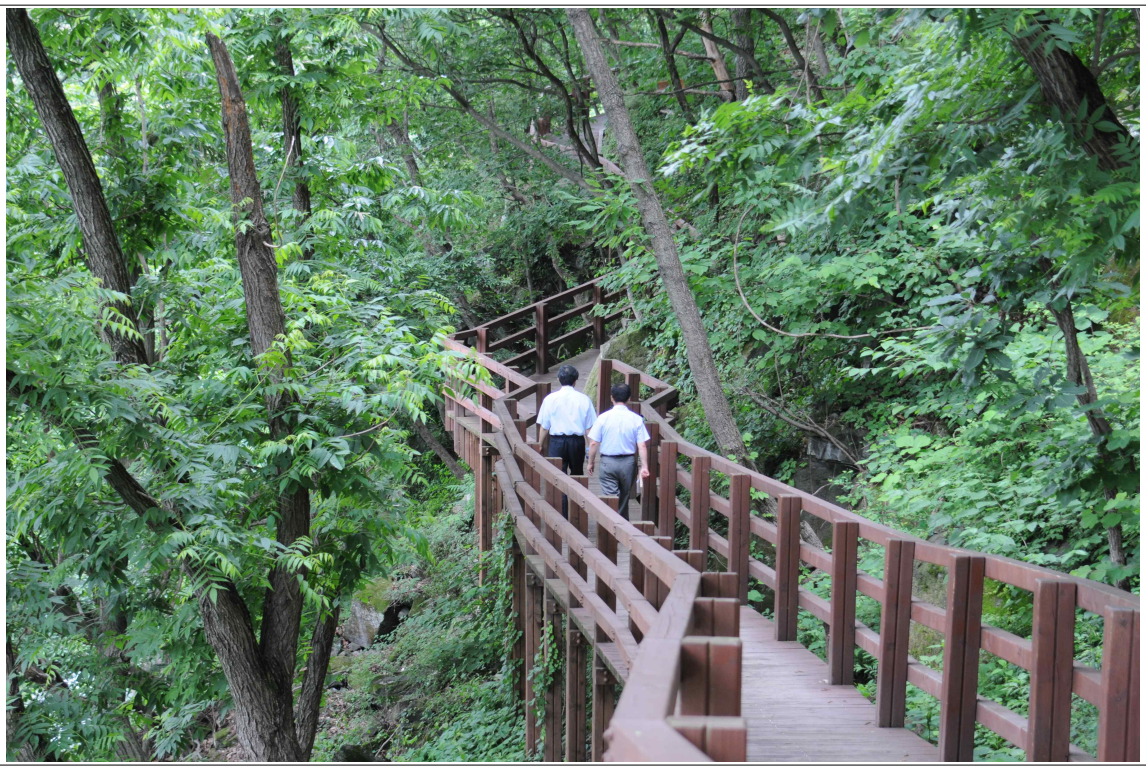
▣ 발표내용 경청

▣ 지정토론

▣ 주요 참석자 기념촬영

▣ 특화 우수사업 현장(괴산고추조합공동사업법인)

▣ 괴산고추조합공동사업법인 시설 내부 시찰



▣ 특화 우수사업 현장(괴산 산막이 옛길)

▣ 특화 우수사업 현장(괴산 산막이 옛길) _ 수려한 경관